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6. 8(수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김창식 사무관 하지영 (Tel. 044-200-2135)
* 즉시 사용			

황교안 국무총리 -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대표단과 오찬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6.8(수) 관저에서 제1회 한·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는 양국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, 한·중 지방 간 교류·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황 총리는 금번 한·중 지사성장회의 출범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, 앞으로 동 회의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우의가 더욱 증진되어 나가고 한·중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,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한·중 관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중국 대표단장인 리샤오린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은 한·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가운데, 금번 출범케 되는 지사성장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양국간 협력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, 동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.
 - 오찬에 참석한 한·중 양국의 지자체 지도자들은 각 지자체의 현황과 상대국과의 교류, 협력 상황을 소개하고 경제, 문화, 체육,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들을 개진하였다.

- 금일 오찬에는 우리측에서 인천광역시장(시도지사협의회장), 대구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강원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, 중국측에서는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 및 시장자치구, 산시(陝西)성, 톈진시, 허난성, 윈난성의 성장 또는 부성장(부시장)과 주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하였다.